삼광사, 대조사전 존상 점안 및 낙성식

3월 10일 1만 여 천태불자 운집해
구호성금 및 자비의 쌀 1만kg 나눔
연면적 280㎡, 높이 18m 규모의
다포양식 등 한국 전통 목조양식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천태종 삼광사가 3월 10일 경내 대조사전에서 '부산 삼광사 대조사전 상월원각대조사 존상 점안 및 낙성 대법회'를 봉행했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영제)가 3월 10일 경내 대조사전에서 '부산 삼광사 대조사전 상월원각대조사 존상 점안 및 낙성 대법회'를 봉행했다.

삼광사 상월원각대조사전은 대한불교천태종을 중창하고 부산을 일승묘법의 불국토로 명한 상월원각대조사의 가르침과 원력을 실천하기 위해 건립됐다. 삼광사는 이번 상월원각대조사전을 통해 부산지역 전법 5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원력을 이어간다는 다짐이다.

낙성 대법회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무원 스님, 종의회의장 세운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 등 천태종 대덕 스님들과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보운 스님, 사무총장 범수 스님 등 스님들을 비롯해 이경훈 삼광사 신도회장, 김희근 고문,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등 신도 1만여 명이 동참했다. 신도들은 상월원각대조사전 앞마당을 가득 채웠고 삼광사 지관전을 비롯해 각 전각에서 영상으로 법회를 시청하며 법회에 동참했다.

점안 법회에 이어 낙성식은 △현판 제막 △테이프 컷팅 △개회선언 △삼귀의 △찬불가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경과보고 △표창패 및 공로패 수여 △튀르키예 성금 전달식 △자비의 쌀 전달식 △개회사 △법어 △치사 △축사 △관음정진 등으로 전개됐다.

삼광사는 이날 법회에서 대조사전 건립 불사를 위해 노력해준 김희근 고문과 이경훈 신도회장, 권영남, 김차수, 정정애, 박동채 불자에게 표창패를 전달했으며, 문광미 일심회 불자 외 9명에게는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어 김종양 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 전수교육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삼광사는 대조사전 불사 완공을 기념하며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으로 회향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성금 2000만 원을 총무원장 무원 스님에게 전달했으며, 부산진구청과 연제구청에 자비의 쌀 1만kg을 전달했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법어를 통해 "위대한 스승님을 모신 성전의 원만회향을 사부대중과 함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청정한 신심으로 불사에 동참한 공덕 크게 빛난다"며 "참으로 귀중한 인연 세세생생 이어지어 보살도의 실천으로 꽃을 피우고 거룩한 상호를 우러러 경배한다. 인류의 행복과 국태민안을 발원하고 참된 진리의 가르침을 늘 가슴에 새기어 바른 길 인도하여 주신 큰 뜻을 따라 부지런히 정진해 성불의 길을 힘차게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은 개회사에서 "삼광사 가람불사의 정점인 대조사전 불사는 前 주지 김세운 종의회의장스님께서 서원을 세워 신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 시작해 오늘 낙성을 하게 되었다"며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서원이 천태불자들의 기도정진으로 이어졌고,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와 주경야선 기도정진의 실천은 삼광사 대조사전으로 나투게 되었으니, 세세생생 중생들의 귀의처로 숨 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오늘 낙성하는 대조사전은 우리 천태종의 총본산 구인사에 이어 두 번째로 모셔진 전각이다. 한국 천태종의 정맥을 중창하시고 드넓은 가르침으로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서원을 성취하신 상월원각대조사님 존상을 모신 이 대조사전은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지표로 꾸준한 신행과 정진을 이어 나갈 천태 불심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바닷가에 높은 등대가 있어서 무수한 선박의 항해가 안전하듯, 이곳 백양산에 대조사전이 있어서 만 중생의 귀의처가 되고 행복을 구하며 복락을 성취하는 길상의 등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광사 상월원각대조사전은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 이어 종단 역사상 2번째로 건립됐다. 2019년 9월 기공식, 2020년 6월 27일 상량식, 2023년 3월 10일 대조사전 상월원각대조사 존상 점안 및 낙성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으며 중층 다포집으로 연면적 280㎡ (85평)에 18m 높이로 화강석 주초석과 원형기둥, 다포양식 및 겹처마에 막새마감으로 한국전통목조양식으로 건립됐다.

박추자 적십자불교지구협 초대회장 회향



박추자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불교지구협의회 초대 회장이 25년간 이어온 봉사활동을 회원들과 나누며 회향했다.

박추자 초대회장은 3월 10일 부산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회관 8층에서 진행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불교지구협의회 창립 18주년 기념 법회 및 초대회장 기념 특강'에서 봉사의 삶과 보람을 전하며 불교 이념을 강조했다. 박추자 초대회장은 적십자봉사회에서 불교지구협의회를 유일하게 구성한 봉사자이다.

박추자 회장은 "불교의 동체대비 사상은 봉사의 이유이다. 어느 곳에서나 불교를 근본으로 삼고 봉사를 이어갈 때 불자로서 신심과 자긍심도 깊어져 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교 봉사 기구로 성장하고 더욱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교 단위회는 2005년 2월에 불교지구협의회로 승격됐으며 보현도량, 성애원,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등 불교계 복지관을 비롯해 환자 수술비 지원, 밑반찬 도시락 전달 등 소외 이웃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녕 법성사, 법성보살 열반18주기 다례재



대한불교 관음종 법성사(주지 법명)가 3월 14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창건주 덕오당 법성보살 열반 18주기 추모 다례법회'를 봉행했다.

다례법회에는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법주사 무상 스님, 종회의장 혜산 스님, 교육원장 도선 스님, 호법원장 경원 스님, 포교원장 도현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도각 스님, 만덕사 지성 스님, 용수사 혜성 스님, 극락암 효진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상단예불, 삼배, 비로자나불 십신불 봉독, 상축, 헌향, 헌다, 헌화, 법성보살 생전 육성법문 청취, 청법가, 입정, 법어, 음성공양, 추모곡, 사홍서원,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법어를 통해 "법성보살님은 자신은 가난해도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서 보살행을 실천하신 분"이라며 "법성보살님의 보살도를 실천하고 수행을 본받아 더욱 정진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도사 불교대학, 역대 최다 1004명 등록

'2023학년도 불교대학 입학식' 봉행
작년 대비해 입학생 100여 명 늘어
홍보노선 변경 등 세심한 노력 결과


통도사 불교대학은 역대 가장 많은 불자 1004명이 등록했다. 통도사 불교대학은 3월 11일 설법전에서 '2023학년도 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 불교대학에 역대 최대 인원인 1004명이 등록했다. 통도사 불교대학은 이를 기념하여 3월 11일 설법전에서 '2023학년도 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하고 정진과 실천을 강조했다.

이번 해 통도사 불교대학 입학 현황은 3월 11일 기준 불교대학 1학년 322명, 불교대학 2학년 194명, 불교대학원 488명 총 1004명의 불자들이 등록했다. 이번 등록 인원은 통도사 불교대학 설립 이래 역대 최다이며 작년 대비 100여 명이 늘어난 인원수이다.

통도사 불교대학 입학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으로 시작했으며 불교대학 2학년 최명자 불자가입학생을 대표해 발원문을 낭독했다.

입학생들은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자 불교대학에 입학한 이 인연 공덕으로 스스로 되돌아보아 삶의 의미를 새롭게 다지고, 저마다의 가슴에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 무생법인의 부처님 세계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라며 발원했다.

이어 주지 현문 스님은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민족문화의 보고이자 한국불교의 중심도량 통도사에 오늘 여러분들이 서 계신다"며 "흙 한 줌, 나무 하나에도 우리 민족의 고귀한 혼이 담겨 있고, 솔숲 지나는 바람에도 시대를 호흡해 왔던 뜨거운 가슴이 담겨있음을 생각하면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도량이다. 이제 그 높은 뜻과 열정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입학생 및 재학생 불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와 기쁨의 말씀을 전하며, 더없이 좋은 오늘을 통도사와 함께 빛내 가시길 축원 드린다"고 말했다.

통도사 불교대학 등록자가 역대 최다로 발전한 동력은 홍보와 불자를 위한 강의 시간 안배 등 세심한 노력으로 꼽을 수 있다. 통도사 불교대학은 홍보 효과를 올리기 위해 교통 중심지 유동인구를 파악해 홍보노선을 변경하고, 통도사로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홍보역량을 집중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 인근 전철역, KTX울산(통도사)역에 새로운 홍보 노선을 구축했다. 이런 홍보 방법은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안내로 신입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를 만들었다. 기존 통도사 불자들을 위해서는 통도사 밴드 화엄의숲에 지속적으로 안내해 등록을 도왔다. 아울러 과목을 다양하게 준비했고 강사 스님도 인지도가 높은 스님들로 구성해 다양화 및 전문화를 모색했다. 특히 강의시간을 다채롭게 마련해 직장인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5회 부산불교대상 후보 추천 공모

공모기간 3월 20일~4월 18일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가 '제5회 부산불교대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부산불교대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지역과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불교중흥에 앞장선 불자를 발굴해 불교계의 귀감으로 삼고자 제정됐다.

부산불교연합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부산불교대상 공모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다. 추천대상자는 부처님 교리 실천, 불교 발전,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부산 불자 또는 불교 관련 단체이다.

후보자 등록 신청자는 부산지역 각 사찰 대표, 부산지역 불교 관련 기관 및 단체장 2인 또는 2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는 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와 공적조서(공적개요, 세부공적내용) 각 1부이며 공적 증빙서류이다. 양식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홈페이지 http://www.bbf.or.kr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051)898-2672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여래선원 여여불교대학, '입학식 · 졸업식'



부산 여래선원 여여불교대학(학장 효산)이 3월 12일 경내 대법당에서 '2023년도 입학식 및 졸업식'을 봉행했다.

여여불교대학 2023년도 입학생은 불교대학 전문반 주간반 92명 야간반 132명, 총224명과 경전반 184명이 신청해 총 408명이다. 졸업식에서는 전문반 졸업생은 104명, 경전반 162명 총266명이 졸업했다.

학장 효산 스님은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여러분들은 가정과 직장 등 여러 인연들 속에서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이다. 그 노력이 복덕이 되었고 아름다운 마음은 보석처럼 아름답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불교대학에서 마음의 보석을 잘 닦아 마주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교육원 개원식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이 승 · 재가를 모두 아우르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났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3월 10일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승려교육원 개원식'을 열었다.

개원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에 이어 발원문, 내빈소개, 학교소개, 축가 순으로 이어졌으며 내빈들의 격려사 및 인사말로 진행됐다.

서해 흥교 대종사는 "일체유심조이다. 이 세상은 모두 마음의 산물이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며 불교 공부는 결국 마음공부"라며 "마음의 원리를 배우고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 스님들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안다. 열심히 정진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원장 심산 스님은 "승가가 이 시대의 변화를 읽으며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배움은 끝이 없을 것이다. 사회 변화를 바라보며 포교하기 위해 성장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서로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는 자리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운영위원장 자인 스님은 "필요했던 승려교육원을 개원해 감개무량하다.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항상 생각하셨으면 한다"며 "시대에 맞는 포교를 위해 배우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고 포교현장에서 적용하고 성장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교육원은 승려의 위의(威儀)와 자질,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다. 조계종뿐 아니라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며 강의 일정은 3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문수전 문수보살 점안식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3월 12일 문수전 문수보살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통도사 문수전은 문수신앙을 중요하게 여긴 개산조 자장율사의 수행정신을 상징해 큰 의미를 지닌다.

통도사 문수전은 〈양산통도사문수전중창기(梁山通度寺文殊殿重創記)〉(1757년)에 따르면 1756년 10월 21일 대광명전과 함께 화재로 소실된 후 새롭게 중창됐다. 그러나 문수전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등 혼란기에 전향각(篆香閣)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통도사는 문수전의 위치를 고증하기 노력해왔다. 이번 문수전 중창은 지난 100년 동안 통도사 도량 내 처음으로 진행된 불사이다. 문수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맞배지붕 형태이며 61.13㎡으로 규모이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통도사 사적기 등 여러 자료를 통해 문수전 위치를 고증했고 전쟁 등 어려운 시대 속에서 소실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었다. 이번 불자는 사부대중의 뜻이 여법히 모였고 오늘 문수보살을 모시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장율사의 창건 정신과 문수신앙을 널리 알려 도량을 찾는 불자들의 신행처가 되고 세계문화유산에 어울리는 도량으로 정비하고 지키고 보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통도사 문수전은 2021년 4월 22일 홈페이지에 문수전 중찰불사 모연을 공지하면서 시작했고 2022년 5월 13일 전향각 철거 및 문수전 신축 허가를 총무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2022년 7월 19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완료했으며 2022년 8월 2일 설계를 변경했다. 2022년 11월 8일 상량식을 봉행했으며 2023년 3월 12일 문수전 점안법회를 봉행해 불사완공을 알렸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쿠무다, 경찰에게 음악으로 힐링 선사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가 3월 10일 부산지방경찰청 6층 어울림마당에서 '2023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 제13회 찾아가는 힐링 음악회'를 개최했다.

쿠무다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선사하고 문화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공연은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의 하모니를 선사한 '트리오 리우'의 음악과 그룹 삼총사가 출연해 클래식과 대중가요 등을 선보이며 경찰관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했다.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경찰에게 감사와 위안을 전하고자 음악회를 준비했다"며 "오늘 이 시간을 누리고 쉼을 얻고 행복한 시간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